

【특집: 근현대 국가 권력의 차별과 공동체 관리】

#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통제와 조선 교회의 공동체 관리

김정화\* (전주대학교)

1910년 한일병합을 전후해 일제는 민족적 성향이 강한 한국 기독교를 억압·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의 기독교 통제 법령을 변용하여 조선이 적용했다. 선교사들은 일제의 기독교 정책과 일본 기독교의 침투를 마주하며, 한국 교회의 자립을 추구했던 초기의 선교 목표를 대신하여 조선 기독교와 교회의 생존을 추구했다. 그 결과 조선 교회는 선교사의 영향 아래 성장해 장로회와 감리회 중심의 교파 교회로 성장했으며, 선교사들이 전해준 정통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복음주의적이고 경건주의적인 신앙이 정착되었다.

선교사들은 조선총독부의 통치에 협조하거나 교섭을 통해 교회와 선교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꾀하는 한편, '이단 시비'와 교회의 '치리'를 교회의 정통적 권위에 저항하거나, 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 대한 통제와 배제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선교사 중심의 교회 운영이나 교권 독점을 비판하고 대립하는 경우, '이단'으로 치부되고 정적·면직·제명과 같이 교회공동체에서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처벌에 그쳤다. 그러나 선교사가 전해준 신앙과 신학을 한국 교회의 정통으로 생각했던 장로교회는 신비주의적 종교체험과 무교회주의, 자유주의적 성경 해석 등을 정통에서 벗어난 이들은 '이단'으로 치부되었으며, 그를 따르는 사람까지 모두 치리해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결속을 도모했다.

■ 주제어: 기독교 정책, 공동체 관리, 이단, 자립화 운동, 최태웅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연구교수 (kjh086@hanmail.net)

이 논문은 2018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8S1A6A3A01045347).

www.kci.go.kr

## I. 머리말

근대 이래 국가는 ‘차별’을 통해 공동체를 통치·유지해 왔다. 차별은 통치의 필연적 요소로서, 국가는 공동체와 통치에 순응하지 않는 ‘소수’를 통치 영역 내에서 구분하고, 배제함으로써 그 사회의 평화를 유지하고자 했다.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사회 구성체 역시 ‘차별’을 구성원 통제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들은 ‘차이’를 ‘차별’로 양산함으로써 조직의 통제에 순응하지 않는 범위를 ‘적’으로 간주하고, ‘우리’ 공동체의 보존을 위한 제거 대상으로 삼았다. 이처럼 차별과 배제는 근대 이래 공동체의 보존과 유지를 위한 통치술로서 활용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역시 차별과 배제를 통해 식민지 조선을 관리했다. 식민지 조선의 종교, 특히 민족적 성향이 강한 조선 교회를 엄격한 기독교 법령 아래 통제·관리하고, 이로써 조선 기독교의 세력 약화를 꾀했다. 조선총독부의 종교 통제로 인해 조선 교회의 생존이 위협받게 되자, 선교사들은 조선총독부의 통치에 협조하거나 교섭을 통해 교회와 선교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꾀했다.

조선 기독교가 보수화되면서, 선교사와 조선 교회는 교회에 대한 일체 문제 제기과 비판을 교회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했다. 이에 조선 교회에는 이들을

‘이단’으로 인식하고, 교회의 ‘치리(治理)’<sup>1</sup>를 통해 책벌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에서 배제시켰다. 이러한 경향은 엄격한 교리와 보수적 신앙을 가졌던 조선예수교장로회에서 두드러졌다.

이렇게 기성 교회에서 배척된 이들은 담당하던 교회를 이끌고 떠나 교회를 독립하거나, 기성 교파와 관계없는 새로운 교회를 창립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1910~1930년대 서양 선교부로부터 독립한 조선 교회의 성립을 주장했던 조선 교회의 ‘자립화 운동’에 주요한 줄기라 할 수 있다.<sup>2</sup>

일제강점기 조선 교회에서 발생한 치리(책벌)에 관한 연구는 권평(2012)의 연구가 유일하다. 김포읍교회 당회록을 대상으로 치리의 내용과 비중을 분석해, 초기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들의 교인들의 도덕적·신앙적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치리가 이루어졌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일제강점기 종파 운동(신종교) 관련 연구에서 기성 교회의 치리(책벌)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간략히 언급되어있다(이진구, 2014).<sup>3</sup>

본고는 1910~1930년대 조선 예수교 장로회를 중심으로 검토한다. 1910년 한일강제병합 이후부터 일본과 조선에서 모든 기독교 교파를 통합되어 일제의 통솔 아래 완전히 들어가게 되는 1940년대 이전까지를 중심으로,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통제 법령이 제정 이후 시대 상황에 맞춰 개정되는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 일제강점기 최대 규모 교파이자 보수적 정통주의 성향을 지닌 조선예수교장로회는 일제강점기 조선 교회 내부의 차별과 배제를 통한 공동체 관리를 검토하기에 적합한 대상으로 생각된다.

1 프랑스 신학자 칼뱅의 신학과 신앙고백을 중심으로 성립한 개신교파인 장로회는 교인이 선출한 대표인 장로가 당회를 조직한다. 당회는 교인이 교리에 불복하거나 불법할 경우 그 증거를 수합해 심사·책벌하는 치리권(治理權)을 가진다. 당회의 상회(上會)로는 노회, 대회 및 총회의 치리회가 있다.

2 기성 교회와 대립으로 인해 조선인 자립 교회를 설립했던 조선 교회의 ‘자립화 운동’의 배경과 전개에 관한 내용은 김정화, 『일제강점기 조선 교회 ‘자립화 운동’ 연구-최태용의 활동을 중심으로』(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2)를 참고.

3 이밖에 조선 교회 운영 및 신학 문제로 기성 교회와 대립해 교회를 독립했던 최중진(崔重珍), 김장호(金庄鎬), 이만집(李萬集), 이용도(李龍道), 최태용(崔泰瑠) 등에 대한 연구가 다수 있으나, 행적과 사상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치리 상황을 자세히 알기 어렵다.

이에 일제강점기 기독교 법령을 통해 조선총독부의 조선 기독교 통제 상황을 검토하고, 당국의 차별적 통제로 인해 조선 교회의 위기감이 고조됨에 따라 교회 내부에서 발생한 비판에 대한 조선 장로교회의 대응을 살펴본다. 또 1930년대 ‘영적 기독교(靈的 基督教)’를 주창했던 최태용 및 그를 따르는 경남노회 소속 전도사들에 대한 이단 치리 과정을 통해 ‘이단 시비’와 ‘치리’를 통한 조선 교회의 공동체 관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차별과 배제의 논리가 양산해 낸 배척된 ‘소수’와의 연대, 공존의 공동체 구성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

## II.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정책과 선교사의 대응

### 1. 조선총독부의 기독교통제정책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정책은 1906년 한국통감부의 기독교 정책에 영향을 받았다. 통감부 시기 제정된 기독교 관련 법은 1899년 제정된 일본의 기독교 통제 법령을 기초해 제정되었다. 일본은 1889년 제국헌법을 반포를 통해 종교의 자유를 공표하였으나(官報(일본) 1889/02/11), 기독교가 일본 국체(國體)와 양립할 수 없는 존재라고 인식하고 법을 통해 통제하고자 했다.

한국 통감부는 한국 기독교가 민족적 색채가 강한 세력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김승태 1996, 16-24), 일본의 기독교 통제 법령을 일제의 통치방침과 한국 상황에 맞게 변용해 한국 기독교를 통제하고자 했다.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는 조선에 부임한 이후 미국 감리교 감독인 해리스(M. C. Harris)를 비롯해 한국에서 활동하는 선교사들이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다. 그는 선교사들에게 정치와 종교의 분리를 요청하고 당국에 대한 협조를 부탁했으나(伴井淸 1921, 6), 다른 한편으로는 기독교를 반일세력으로 인식하고 선교사를 감시했다.<sup>4</sup>

1910년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독부는 통감부의 기독교 정책을 이어받아 식민지 조선의 기독교를 억압, 통제해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다(朝鮮總督府 1914, 4-5). 일제는 장기적으로는 일본 종교계를 통해 식민지 조선의 종교를 장악하고자 했다. 조선총독부는 당시 조선에 진출해 있던 일본 기독교파 중, 일본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력하고 식민지 전도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던 일본조합교회<sup>5</sup>의 조선 전도에 많은 편의를 제공했다. 일본조합교회의 선교비를 충당하기 위한 모금위원회에 조선총독인 데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가 직접 후원하고, 도쿄의 유수한 실업가를 초청한 자리에서 조합교회의 조선인 전도에 대한 원조를 촉구함으로써 일본조합교회는 막대한 선교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정성하 2000, 278; 박혜미 2013, 87) 이를 통해 일본조합교회의 조선 전도 규모는 매년 확장되었다(서정민 2002, 179).

한편, 조선총독부는 1915년에 이르러 기독교에 대한 통제 법령을 제정할 수 있었다. 통감부의 기독교 정책을 이어받아 조선총독부 역시 기독교를 통제의 대상으로 인식했다. 그러나 한일병합 이후에도 여전히 서양 선교사들의 치외법권이 조선에서 효력을 발휘하고 있었기 때문에 선교사와 조선총독부의 분쟁으로 인해 미·일 간의 외교 마찰이 생길 것을 우려했던 조선총독부는 조선에서 서양인의 거주지 행정권이 완전히 철폐되는 1914년 이후 본격적인 기독교 통제에 착수했다.

1906년 통감부 설치 이후 일제강점기 동안 시행된 기독교 관련 통제 법령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 선교사에 대한 감시기록의 일부가 『주한일본공사관기록』 28, 「1906년~1909년 선교사 및 기독교도에 관한 서류」와 정부기록보존소에 보관되어 있는 「耶蘇敎ニ關スル諸報告」(1910, 6)에 남아있다.

5 일본조합교회는 1904년 한국 전도를 시작했으며, 1910년~1920년까지 크게 성장했다. 한일병합 이후 일본조합교회는 ‘조선 기독교의 일본화’, 조선을 넘어 ‘만주와 중국 대륙 전도’란 목표를 세우고, 1911년 7월 조선전도본부 총무였던 와타세 쓰네토시(渡瀨常吉)를 중심으로 본격적인 식민지 전도를 시작했다(小川圭治·池明觀 편 1984, 236-288).

〈표 1〉 1906~1922년 공포된 기독교 관련 주요 법령

| 공포일자       | 법령 종류 및 번호   | 법령명                |
|------------|--------------|--------------------|
| 1906.11.17 | 통감부령 제45호    |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      |
| 1908.08.26 | 칙령 제26호      | 사립학교령              |
| "          | 학부훈령 제2호     | 사립학교령 반포에 관한 훈령    |
| 1908.08.28 | 학부령 제14호     | 사립학교보조규정           |
| "          | 학부령 제15호     | 공사립학교인정에 관한 규정     |
| "          | 학부령 제16호     | 교과용 도서검정규정         |
| 1911.10.20 | 조선총독부령 제114호 | 사립학교규칙             |
| 1912.03.30 | 조선총독부령제71호   |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 |
| 1915.03.24 | 조선총독부령 제24호  | 개정 사립학교규칙          |
| 1915.08.16 | 조선총독부령 제83호  | 포교규칙               |
| 1920.03.01 | 조선총독부령 제21호  | 개정 사립학교규칙          |
| 1920.04.07 | 조선총독부령 제59호  | 개정 포교규칙            |
| 1922.03.28 | 조선총독부령 제27호  | 개정 사립학교규칙          |

\* 『朝鮮總督府官報』 및 『官報(일본)』

한국통감부와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통제 법령은 크게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관한 법률과 기독교 및 교회에 대한 법률로 나눌 수 있다. 미·일 관계를 의식한 일제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에 앞서, 한국 교육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던 기독교계 사립학교에 주목했다. 당시 기독교계 사립학교는 조선인에게는 근대학문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었으며, 선교사와 조선 교회에는 조선인 전도를 위한 핵심 기관 중 하나였기 때문이다.<sup>6</sup>

일제는 한국에서 기독교의 확장을 막기 위해 우선 기독교계 사립학교를 통제하고, 그 규모를 위축시키고자 했다. 일제는 사립학교의 설립과 폐지 및 학교의 제반 사항을 규정했던 일본의 ‘사립학교령’과 ‘사립학교 시행규칙’의 변용

6 서양 각국에서 파견된 선교사들은 선교본부의 지원을 받아 선교지에 파견된 후 현지 선교부(Mission)를 조직하고, 하위 거점 도시에 선교지부(Station)를 설치했다. 선교지부에는 선교사의 주거와 교회를 비롯해 선교 기관인 학교, 병원이 설립되었다. 전라도를 중심으로 선교했던 미국 남장로회 선교부는 매년 본국 선교부에 선교거점인 전주·군산·광주·목포·순천 및 평양과 서울의 선교 사업현황을 보고했는데, 이 보고서를 통해 매년 해당 학교 교사와 학생 수 및 소요 경비 등을 확인할 수 있다(Annual Meeting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선교사들을 선교 거점 도시에 학교를 설립해 학생들과 그 가족을 전도했으며, 매해 본국 선교부에서 전송되는 선교비의 일부분은 학교에 전용되었다.

하고, 일본법에 없는 새로운 규칙을 추가해 1908년 칙령 제26호 ‘사립학교령’을 제정했다(대한제국관보 1908/09/01).

한일병합 이후 1911년 ‘사립학교 규칙’을 통해 사립학교를 통제할 수 있는 학부대신의 권한이 조선 총독에 이관되었으며, 총독과 지방관의 감독·통제 권한이 더욱 강화되었다(조선총독부관보(이하 관보) 호외 1911/10/20). 또 1915년 공포된 ‘개정사립학교규칙’에서는 사립학교의 교과과정을 제한해 사립학교의 종교 교육을 금지하고, 교원의 자격에 ‘일본어 능통’을 추가함으로써 사립학교에서 서양 선교사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자 했다(관보 1915/03/24).

한편, 1915년 일제는 조선에서 기독교파 교회를 직접 통제할 수단으로 ‘포교 규칙’을 공포했다(관보 1915/08/16). 포교 규칙은 일제강점기 조선 기독교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했던 기본법이었다. 1906년 한국통감부에 공포했던 ‘종교의 선포에 관한 규칙’은 한반도에서 포교하는 일본 종교를 대상으로 한 법이었기 때문에 신고 내용이 복잡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교 규칙’에서는 포교와 관련된 모든 사항에 조선 총독의 허가가 필요했고, 포교자의 신고 및 종교용 장소의 허가 규정이 매우 복잡해졌다. 뿐만 아니라 일본법에는 없는 “포교 관리자”의 조항이 신설되었다. 조선 총독은 포교 관리자를 인가하는 권한뿐 아니라 변경을 명령할 권한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조선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또 조선 총독부는 매년 소속 포교자의 명부 및 신자 수와 신자 증감 현황을 보고받음으로써 조선 교회의 상황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

이처럼 1910년대 기독교 통제 법령은 조선에서 기독교의 세력 확장을 억압하고, 선교사의 활동을 제약하는 법이었다. 그러나 선교사는 조선총독부에 적극적으로 항의해 선교사업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일제의 통제 정책을 수용하고 당국과의 협조와 교섭을 통해 선교사업을 추진했다.

1919년 3·1운동이 발발하고, 선교사의 비난에 직면한 일본은 미·일 관계의 악화를 우려해 조선에 대한 식민지 통치 방침을 변경하고, 선교사와 관계 개선을 모색했다.

신임 총독으로 임명된 사이토 마코토[齋藤實]는 선교사들과 의사소통을 재개하는 것을 조선 통치의 긴급현안으로 생각하고, 선교사를 회유하고자 했다(齋藤子爵記念會 편 1941, 850-851). 그는 조선에 부임한 이후 선교사들에게 총독부의 종교 정책에 관한 의견을 요청했다. 선교사들은 교회와 선교회 및 선교 기관에 대한 간섭과 종교 문헌에 대한 검열, 종교 집회에 대한 제약을 시정해 종교의 자유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는 ‘전선선교사대회 진정서(全鮮宣教師大會 陳情書)’를 제출했다(조선총독부 1923, 46).

조선총독부는 이 진정서의 내용을 일부 수용해 교과목 제한 조항을 삭제한 ‘개정 사립학교규칙’을 발령했다(관보 1920/03/01) 또 ‘개정 포교규칙’을 공포해 포교자 및 포교소 설립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함으로써(관보 1920/04/07) 통제를 완화하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러나 1922년 제2차 조선교육령 공포(관보 호외 1922/02/06) 이후 조선총독부령 제27호로 전문을 개정한 ‘개정 사립학교규칙’이 공포되었다(관보 1922/03/28). 1922년 ‘개정사립학교규칙’에서는 교과목에 대한 규정을 다시 고쳐 ‘각종 학교’에서만 교과목을 자유롭게 채택할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사립학교에서 종교 교육은 아예 불가능해 졌고, 총독부의 인가를 받지 않은 각종학교에서만 종교 교육이 가능했으므로, 선교사가 장악한 기독교계 학교들은 학생들의 취업과 진학에 불리하더라도 종교 교육을 위해 사립학교 인가를 포기했다. 때문에 인가를 받지 않는 학교 측과 학생들 간의 분란이 발생하였고(조선일보 1921/06.01), 기독교계 사립학교로 진학하는 비율도 점점 낮아졌다. 선교사들은 당국과의 교섭을 통해 보통학교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지정학교’ 승격을 요구했으며, 그 해 경신학교가 최초로 지정된 이후 1935년까지 8개 장로교계 학교만이 지정학교로 승격되었다.<sup>7</sup>

7 진학 문제로 인해 학생들의 동맹휴학이 계속되자, 선교사들은 1921년 4월 공포되었던 조선총독부령 제 72호 ‘전문학교입학자검정규정’과 일본의 사립각종학교의 전례 및 2차 조선교육령의 사립각종학교와 관한 조선 총독의 재량권을 제기하며 당국과 교섭을 진행해 지정학교로 승격을 요청했다. 1923년 4월 사이토 총독은 교원과 설비, 교과과정 등 관 · 공립학교 수준으로 정비하는 조건으로 ‘지정’된 사립각종학교를 인정한다는 방침을 제정했다(김정화 2022, 163). 그러나 지정학교로 승격되더라도 바로 효력이 발휘되

한편, 1912년 조선총독부령 제71호 ‘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정’이 제정된 이후(관보 호외 1912/03/30), 조선 장로교회는 1910년대부터 교회 재산 문제로 재단 설립을 요구해왔으나, 까다로운 설립 규정으로 인해 설립이 어려웠다. 그러나 1920년대 조선 교회 및 선교회의 재단법인 인허가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는데, 1924년에 미국 남장로회 선교회가 유지재단 설립을 허가받은 이후 선교사들의 선교회 재단 설립이 순조롭게 이어졌으나, 한국인의 수가 많았던 노회의 경우 설립 요건을 까다롭게 적용해 재단 설립을 미뤄왔다. 당국은 법인 설립을 위해 제출해야 했던 재산목록과 사업상황, 수입·지출 내역을 통해 ‘포교 규칙’ 만으로는 세세하게 알 수 없었던 기독교 단체의 자산 구조와 상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당국의 기독교 단체 통제가 더욱 용이해졌다(안유립 2018, 345-359).

1915년에 조선 기독교 통제를 위한 ‘포교규칙’과 ‘개정 사립학교규칙’이 제정된 이후 기독교 관련 법령은 식민지 상황에 따라 약간씩 수정·보완되었으나 그 골자는 일제 말까지 유지되었다. 1920년대 문화통치 아래 조선총독부는 기독교에 대한 통제 역시 완화하는 태도를 취했으나, 실상은 설립과 인허가 규정을 복잡하게 만들고, 총독부가 교회 및 학교, 재단 등 단체 현황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즉 1920년대 기독교 관련 법령은 조선 기독교 통제를 위한 편의가 구축되었던 시점으로, 통제 완화를 가장한 철저한 기만정책이 시행되었다.

## 2. 조선 교회 ‘자립화 운동’의 전개와 교회의 대응

1906년 이래 일제의 기독교 통제는 계속 강화되었다. 그러나 선교사들은 선교본국과 본국 선교회의 요구에 따라 교회의 비 정치화 및 현실 권력과의 연계

---

는 것은 아니었던데다, 1936년 신사참배 문제가 발생하고 선교사들이 교육철수를 결의하자, 지정학교 승격을 포기할 수 없었던 학교측은 선교사에게 기독교계 학교를 인계받아 학교를 유지하고자 했다. 그로 인해 학교 경영권 양도를 놓고 서양 선교사와 조선 기독교계의 갈등이 발생했다(기독신보 1936/01/08)

속에서 선교를 추진했다(Rovert E. Speer 1897, 36-37; Arthur J. Brown, 1902, 6).

1890년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들의 요청으로 한국을 방문했던 네비우스(J. L. Nevius)의 선교 정책은 이후 장로회 선교사들의 선교 정책에 영향을 주었다(이종우 2006, 146-148). 장로회의 한국 선교는 한국 교회의 ‘자립(自立)’, ‘자전(自專)’, ‘자치(自治)’를 목표로 추진되었고, 그 결과 1901년부터 조선인 총대(總代)가 참여하는 조선예수교장로회공의회가 성립되었으며 이후 독노회, 총회가 성립하면서 한국인의 참여는 더욱 확장되었다.

그러나 일본 천황제에 승복하고 일본 정부의 충실한 협력자가 된 일본 기독교의 노골적인 조선전도와 1906년 이래 기독교 통제 법령의 강화, 1910년 한일 병합이란 역사적 사건을 마주하는 가운데 재한 선교사들의 선교정책은 엄격한 정교분리(政教分離)를 강조하며, 정치적 성향을 지닌 교인들을 엄하게 처리했다(류대영 2013, 418). 한국 기독교인들에게 엄격한 정교분리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선교부는 1906년 통감부 설립 이후 통감부와 유화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선교의 편의를 도모했다. 그 결과 문명개화와 부국강병, 독립의 수단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였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다.

선교 전략의 변화로 한국 교회는 선교회에서 자립하지 못하고, 처음 선교사가 전해준 서구 기독교가 그대로 이식·정착된 교회로 성장했다. 교회는 선교회의 영향으로 장로회와 감리회 중심의 교파 교회로 성장했으며, 서양 선교사들이 전해준 정통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복음주의적이고 경건주의적인 신앙이 정착되었다. 선교사들은 조선 교회를 자체적으로 운영해 나가야 할 조선인 총대를 비롯해 조선 교회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으며, 1940년대 초 일제의 추방령 혹은 본국 송환 이전까지 막대한 선교비가 투입되는 선교 기관은 선교사가 직접 경영·관리했다.

때때로 선교사가 주도한 조선 교회에 대한 비판과 저항이 발생했다. 그 갈등 원인과 교회의 대응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1910~1930년대 교회 비판과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처리

| 소속           | 이름           | 갈등                                       | 처리                         |
|--------------|--------------|------------------------------------------|----------------------------|
| 장로교<br>전북대리회 | 최중진<br>(崔重珍) | 선교사의 독단적인 운영 비판 등 5개 요구사항을 전<br>북대리회에 발송 | 수용불가 및<br>당회권 정지           |
| 장로교<br>황해노회  | 김장호<br>(金庄鎬) | 자유주의 신학의 성경 해석 채택                        | 휴직 · 면직                    |
| 장로교<br>경북노회  | 이만집<br>(李萬集) | 계성학교 동맹휴학 사건을 둘러싼 교회와 당회, 노회<br>의 대립     | 정직 · 제명                    |
| 감리교          | 이용도<br>(李龍道) | 신비주의 신앙, 평양기도단 사건                        | 총회, '이단' 규정<br>· 장로교회 출입금지 |
| -            | 최태용<br>(崔泰瑠) | 무교회주의, 제도적 교회와 교역자 비판, 영적 기독교<br>론       | 경남노회, '이단' 규정              |
| -            | 김교신<br>(金敎臣) | 무교회주의, 제도적 교회와 교역자 비판, '조선산 기<br>독교'     | 장로교회의 '이단 사비'              |

먼저, 최중진은 전북 고부 출신으로 미국 남장로회 선교사 테이트(L.B. Tate)의 조사로 활동했다. 1908년 평양 장로회신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 제3회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에서 목사로 안수받았으며, 테이트와 함께 태인·정읍 등 전북 서남부 지역 교회를 담당했다.

1909년 최중진은 자신이 소속된 전라 대리회에 편지를 보내 선교사가 주도하는 조선 교회 상황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선교사들이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과 선교 구역 배분 및 선교 기관 운영을 선교사가 독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비판했으며, 교회가 전도뿐 아니라 구휼(救恤) 사업 등 조선 사회가 가진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며, 선교사에 비해 낮은 대우를 받던 조선인 목회자에 대한 처우 개선 등을 요구했다(전북대리회록 1910/01/05). 전북대리회는 이 요구를 거부하며, 최중진에게 “배은(背恩), 배약(背約), 분쟁, 무지각(無知覺), 불복종”의 5개 죄목을 고지하고 최중진의 당회권을 정지했다(전북대리회록 1910/01/07).<sup>8</sup>

최중진이 자유교회가 표방하자 정읍·태인 지역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인 매계교회를 비롯해 최중진의 관할 아래 있던 교회가 자유교회로 다수 이탈했다.

8 이상의 내용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북노회 편, 2000, 『전북노회 회의록 1』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북노회, pp.42-128에 수록된 「전북대리회록」을 참고.

장로교에 남은 교회 역시 최중진을 따르는 파벌과의 분쟁으로 인해 많은 교인이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전라북도 서남부 지역에서 장로교 세력이 위축되었다.

1910년 9월에 열린 제4회 조선예수교장로회 독노회에서 최중진을 파직했으며, 최중진을 따라 장로교를 이탈한 정읍지역 교회에는 전도자를 보내 다시 복귀할 것을 설득했고, 끝내 복귀하지 않는 경우 교회 예배당을 폐쇄해 정읍지역에서 자유교회가 확산을 막았다(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2005, 280; 김수진 1992, 80-113). 이때 최중진과 자유교회에 대한 독노회의 결정은 이후 조선예수교장로회가 교회를 비판하거나 선교사와 갈등하는 상황에 대한 기본입장이 되었다.

1916년 조선예수교장로회 황해노회는 6월에 열린 제10회 황해노회에서 봉산읍 소재 신원교회(新院教會) 목사 김장호가 자유주의 성경 해석을 수용한 일로 총회 총대 자격을 정지시켰다.

김장호는 선교사 커(W. C. Kerr, 孔偉亮)의 영향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수용했다. 자유주의 해석은 정통교회가 중요하게 여기는 성서무오설(聖書無誤說)과 축자영감설(逐字靈感說)을 부정하는 입장으로, 조선예수교장로회의 정통주의 신학 해석에 맞서는 것이었다. 황해노회는 김장호의 성경 해석이 불합(不合)하다고 보고, 김장호에 대한 신학적 권면을 지속했다.

김장호가 노회의 휴직 처분을 무시하고 교회를 계속 인도하자, 1917년 황해노회에서 김장호를 신원교회 담임에서 면직시키고, 노회 명령을 따르지 않는 신원교회도 책벌했다. 이듬해 7월에 열린 제14회 노회에서는 김장호를 조사했던 별위원(別委員)의 보고를 받아, 김장호에게 6개월의 휴직 처분을 내리고 신원교회에는 미국 장로회 선교사 헌트(W. B. Hunt, 韓煥廉)를 파견했으나, 김장호와 신원교회는 황해노회의 처리에 승복하지 않았다.

1918년 7월, 김장호는 신원교회를 거점으로 “바른 신앙을 가진(正信) 교회, 동양인의 교회, 국민의 교회”를 표방하며 조선기독교회를 설립했다(김장호 1941, 46-49).<sup>9</sup> 그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갖고 조선기독교회를 설립

했으나(동아일보 1923/09/20), 황해노회는 김장호의 조선기독교교회 설립을 인정하지 않고 재차 휴직 명령을 내리며 선교사 힌트에게 신원교회를 돌보도록 했다(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2002, 148-162).

1923년 경남노회는 대구 남성정교회의 목사 이만집(李萬集)에게 정직 처분을 내렸다. 대구 계성학교(啓聖學校)의 종교 교육 문제가 발단이 되었다(동아일보 1921.6.13.). 당시 계성학교 학생들과 교사들 대부분이 남성정교회와 남산교회에 다녔다. 동맹휴학 사건을 놓고 선교사의 뜻에 따라 학교 인가를 보류하지는 세력과 학생들의 동맹휴학을 성원하는 세력으로 교회 교인들이 분열되었다. 이만집은 학생들의 동맹휴학 지지하는 입장이었는데, 경북노회에 고소사건이 계속되며 교회의 분란이 가중되었다. 이에 경북노회는 교회 분규에 개입해 조정하고자 했으나, 노회와 당회의 의견차이로 인해 경북노회와 남성정교회의 불화까지 가중되었다.

1923년 1월 제13회 경북노회에서는 계속되는 남성정교회 분규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을 선정하고, 조사·처리하도록 했다. 그해 3월 경북노회 별노회(別老會)에서 전권위원회는 이만집이 불경한 연설을 하고 노회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여 노회의 위신을 떨어뜨렸으며, 노회 명령에도 복종하지 않으므로, 이만집을 그대로 두면 다른 교회까지 선동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김남식 1987, 36). 6일 뒤에 재개된 별노회에서 전권위원회는 이만집에게 정직, 다른 교인들에게는 면직과 책벌 등의 처분이 내렸고, 이만집이 담당하던 남성정교회는 임종하(林鍾夏) 목사를 당회장으로 임명했다.<sup>10</sup> 이만집은 경북노회의 결정에 불복하고 남성정교회를 거점으로 자치교회를 선언했다(조선총독부관방문서과 1926, 231). 이에 경북노회는 다시 별노회를 열어 이만집을 노회에서 제명하고,

9 김장호는 서양 선교사에게 의지하지 않는 교회, 조선적 정신을 배양하는 교회를 목표로 조선기독교교회를 설립했다(동아일보 1923/09/20). 교회는 황해도 봉산 사리원에 본부를 두고, 황해도, 경성, 평북지역 등으로 교세가 확대되었고, 1932년에는 교회가 34개 소, 교인은 1,400여명으로 성장했다. 또 봉산군에 사립 신흥학교도 운영했다. 조선기독교교회는 당시 서양 교회에서 자립한 교회로 인식되며 크게 성장했으나, 김장호 개인은 1920년 초부터 친일에 깊이 빠졌던 것으로 보인다(김장호 1941, 15-60).

1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앞의 책(2002), 217쪽·238쪽.

자치교회에 합류한 교인을 세례명부에서 제명했다(조선일보 1923/0313).

한편, 1930년대 조선 기독교계에서는 선교사의 보수적인 신앙을 비판하며, 신비주의·무교회주의·근대 신학을 수용해 조선 교회의 보수적 정통주의 신학을 극복하고 조선인의 신앙을 회복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먼저 부흥강사로 유명했던 이용도는 수도적 삶을 살았던 프란체스코(Francesco)와 신비주의적 경향이 강하던 선다 싱(Sundar Singh)과 스베덴보리(E. Swedenborg) 등의 영향을 받았던 인물이다(이용도 1986b, 35-38, 116). 그의 수도적·신비적 영성은 부흥회를 통해 표출되었는데, 그는 ‘회개’와 ‘신생(新生)’을 주제로 설교하며 신비주의에 기초해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합일을 주장했다(한국 기독교역사학회 편 2018, 192). 이용도의 신앙 주장은 많은 경우 조선 교회와 목회자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무교회주의자”로 불렸다(변종호 1973, 78).

1930년 목사안수를 받은 뒤 이용도는 원산과 신비주의자 백남주(白南柱) 등과 교류하면서 입신(入神)과 계시 등 신비주의에 더욱 몰입했다(동아일보 1933/04/10). 그가 이끄는 부흥회는 파격적이고 열광적인 분위기로, 장로교, 감리교를 가리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는데, 기성 교회에서는 교인들이 이용도의 집회로 선동당할 것을 걱정했다(기독신보 1931/07/01).

이용도에 대한 장로교회의 견제는 평양기도단 사건으로 표면화되었다. 1930년 통천교회 전도사였던 이용도가 평양에서 이끈 부흥회를 계기로 기도 모임이 시작되었다. 당시 조선 교회는 스스로 예수라고 칭하고 다니던 황국주(黃國柱) 및 무교회주의로 인해 혼란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기도 모임에 대한 평양노회의 경계가 심했다. 평양노회는 남궁혁(南宮赫), 채필근 등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이를 조사하게 했다.

1932년 10월에 있었던 제23회 평양노회에서 사경회나 수양회를 개최할 때, 장로회의 인허를 받은 자를 초빙하고 “기도는 은밀, 조용히 할 것” 등을 결의했다. 또 이용도의 활동을 신비주의로 규정하고, 상회(上會)의 허가가 없는 단체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평양기도단의 해체를 명령했으며, 이용도의 장로교 활동을 금지했다(기독신보 1932/10/19). 뒤이어 11월 열린 제23회 평서노회와

12월에 열린 제43회 황해노회도 이용도를 장로교 활동을 금지했다(기독신보 1932/12/21, 1932/12/29).

잇달은 이단 처분으로 이용도에 대한 기성 교회의 배척이 심해졌다. 그는 형 태나 제도와 관계없이 예수를 믿는 믿음만으로 단순해지고자 생각하며, 1933년 6월 서양의 교파 교회와의 연결고리도 경제적 지원도 없이 예수교회를 설립했다.<sup>11</sup> 이에 장로교회는 이용도와 예수교회에 대한 이단 혐의를 더욱 강화했다. 1933년 9월에 열린 제22회 장로교 총회는 이용도를 ‘이단’으로 규정하고, 이용도의 장로교회 출입을 봉쇄했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편 1980e, 595).<sup>12</sup>

한편, 김교신(金敎臣)과 최태용(崔泰瑈)은 일본 유학 중 우치무라 간조(內村監三)의 무교회주의(無教會主義)를 수용했다.<sup>13</sup> 이들은 조선 기독교가 선교사의 영향으로 인해 신앙 자체보다 교회 제도에 매몰되었다고 비판하며, 신앙의 갱신·부흥을 주장했다. 조선에 귀국 뒤, 일정한 교회에 소속되지 않고, 각각 독립전도자로 강연 또는 전도지를 발행하며 전도했다.

김교신은 1927년 3월 도쿄고등사범학교 지리·박물과를 졸업하고 귀국한 뒤, 같은해 7월부터 일본에서 만난 동료들과 함께 『성서조선』을 발행했다. 『성서조선』은 1942년 폐간 때까지 15년 동안 조선의 무교회주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앙잡지로 발행되었다.

김교신은 무교회주의를 “진정한 기독교이자, 그리스도의 정신”이라고 인식하고, 무교회주의자를 “진정한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했다(김교신 2001b, 20-21). 『성서조선』은 창간 때부터 기성 교회와 등지고 무교회를 주창했는데, 기성 교회의 교리와 조직, 예배 의식 등을 거부하고 무교회주의를 중심으로 독자적인

11 장·감 연합 신문인 『기독신보』는 예수교회의 설립을 두고, “우리 사람들의 손으로 순전히 된 교회”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기독신보 1937/03/10, 1937/03/17). 이용도는 예수교회를 설립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았던 1933년 10월에 사망했고, 예수교회는 이호빈에 의해 이어졌으며 백남주 등 원산파는 철산의 새주파 김성도 세력과 결합해 성주교회를 설립했다(이진구 2014, 215-219).

12 감리교도 소속 목사인 이용도에 대해 1933년 중부연회에서 휴직을 처분했다(감리회보 1933/07/10).

13 우치무라는 자신의 신앙적 입장을 지칭하는 용어로 ‘무교회주의’란 단어를 사용했는데, 교회(ecclesia)란 회합(會合), 회중(會衆)을 뜻하는 것으로 성도로서 부름 받은 자의 모임이라 주장했다(土肥昭夫 2012, 178-184). 이는 교회를 건물, 제도, 신앙 등과 동일시 하는 당시 기독교를 비판을 담은 말이었다.

신앙공동체를 성립하고자 했으며, 그는 “조선 혼(朝鮮魂)을 가진 조선인을 위로 하는 무교회주의”가 되하고자 했다.<sup>14</sup>

최태용도 1923년 귀국한 이후 독립전도자로 활동하며 전도용 잡지를 발간했다. 최태용에게 무교회주의는 신앙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정상적인 상태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창(窓)’이었다(최태용 2009b, 254-255). 그는 무교회주의를 통해 일본과 조선의 교회 상황을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1922년 일본에서 『일본에 보낸다』를 출간해 선교사가 복음보다 선교 사업에 치중하는 것을 비판했는데, 조선으로 귀국한 뒤에도 그 논조를 이어 잡지 『신생명(新生命)』에 조선 교회를 비판하는 글을 여러 편 게재했다.<sup>15</sup>

1925년 6월부터 2년동안 『천래지성(天來之聲)』을 24개 호 발행했고, 1929년 2월부터 1937년 7월까지 『영과 진리(靈과 眞理)』 119개 호를 발간했다. 최태용은 당시 교회에 대해 조선인 스스로 성취한 것이 없다고 하며(최태용 2009a, 254-254), 신경이나 제도를 신앙과 착각함으로 인해(최태용 2009f, 74), 조선 기독교는 조선 교회의 신앙이 말라버렸다고 했다. 또 조선 교회에 신앙 혁명을 통한 생명력이 있는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최태용 2009a, 227), 신앙 부흥의 구체적 방법으로 최태용의 독자적 자기 신학인 ‘영적 기독교(靈的 基督教)’를 정립했다(최태용 2009c, 409).

이용도와 김교신과 최태용은 조선 교회 특히 장로교회로부터 “무교회주의자”로 비난받았다(변종호 1973, 78; 기독교신보 1932/12/14). 일제강점기 조선 교회는 무교회주의를 교회를 부정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교회와 선교사에 대한 비판을 교회 제도를 거부하고 교회를 해체시키려는 공격으로 인식했다. 때문에 당시에는 “무교회주의자”란 말을 ‘이단’과 같은 의미에서 사용했다(최태용 2009c, 250, 449-450).<sup>16</sup>

14 『김교신전집』 1, 21쪽.

15 최태용은 1924년 9월부터 1925년 3월까지 『신생명』에 ‘생명 신앙’을 주제로 여러 편의 글을 기고했는데, 1933년 김한준이 이 글을 모아 『생명 신앙』이란 제목으로 출간했다.

16 김교신은 기성 교회의 “무교회주의자”란 비난에 대해 스스로를 “성서본문의 연구와 주해에 전력을 다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개 평신도”라고 설명했다(전인수 2011, 135). 『성서조선』을 중심으로한 무

1910~1930년대 조선 교회는 일제의 기독교 통제 법령 강화와 기독교회 내부의 비판이라는 안팎의 ‘적’을 마주했다. 조선 장로교회는 현실 권력인 조선총독부의 정책에 순응하고, 때로 교섭을 통해 선교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조선 교회의 제도와 신학을 거부하는 비판세력에 대해서는 이를 이단적 견해로 치부해 교회 활동을 제약했으며 종래에는 ‘이단’으로 규정해 교회 공동체에서 축출했다.

조선예수교장로회는 최중진·이만집과 같은 선교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휴직, 면직 등의 처벌에 그쳤으나, 1930년대 초 장로교회의 보수적 정통주의 신학 외 다른 신학적 입장을 견지했던 이용도·최태용의 경우 ‘이단’임을 명확히 하고 장로교회 출입을 막는 등 적극적인 ‘치리’를 통해 교회 공동체의 혼란을 방지했다. 다음 장에서는 1930년대 ‘영적 기독교(靈的 基督教)’를 주창했던 최태용 및 그를 따르는 경남노회 소속 전도사들에 대한 이단 치리 과정을 통해 ‘이단 시비’와 ‘치리’를 통한 조선 교회의 공동체 관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 Ⅲ. ‘영적 기독교’의 이단 시비와 장로교회의 공동체 관리

1933년 경남노회는 최태용을 따르던 세력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노회의 지도와 권면에도 반성하지 않는 소속 전도사와 장로들을 “이단”과 “상회 명령 불복종”의 죄목으로 출교, 면직, 무기한 책벌 등을 처분을 내렸다. 최태용 추종 세력에 대한 치리는 1931년 부산 시찰구 소속 전도사들이 백남용을 초빙해 열었던 전도 집회가 원인이 되었다. 집회를 인도했던 백남용의 사상적 기반이 최태용의 ‘영적 기독교’에 있음을 알고 ‘영적 기독교’에 대한 이단 시비를 통해 최태용계를 경남 노회 소속 교회에서 배제시켰다.

본장에서는 경남노회에서 이단으로 지목되었던 최태용의 ‘영적 기독교’에 대

---

교회주의 공동체를 꾸려 문서 전도와 강연활동을 계속했다.

해 살펴보는 한편, 최태용 및 그를 따르는 경남노회 소속 전도사들에 대한 이단 치리 과정을 통해 ‘이단 시비’와 ‘치리’를 통한 조선 교회의 공동체 관리를 확인하고자 한다.

## 1. 최태용의 ‘영적 기독교’와 교회의 배척

수원농림학교 재학시절 중 기독교를 접한 최태용은 1916년 소명체험을 통해 전도자의 삶을 결심했다(최태용 2009f, 59-60). 그는 1921년 신학을 공부하기 위해 일본에 유학했고, 일본에서 우치무라 간조와 교류하며 무교회주의와 신앙의 독립성을 배웠다. 그는 무교회주의를 통해 당시 교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강도높은 비판을 가하는 한편, 생명적 신앙의 회복 필요성을 주창했다. 그러나 조선 교회는 최태용은 “무교회주의자”, “이단”으로 칭하며 배척했다(최태용 2009a, 430). 그에 따라 전도지 『천래지성』의 구독자 수도 점차 줄어 결국 폐간했으며(최태용 2009a, 482, 572-593), 점차 설교할만한 강단을 얻기도 쉽지 않았고 말했다(최태용 2009b, 55).

1929년 2월 최태용은 다시 전도용 잡지 『영과 진리(靈과 眞理)』를 간행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 최태용은 금마교회의 초청을 받아 부흥회를 열었는데, 이 일로 금마교회가 문책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또 강연 원고와 글을 모아 소책자 『조선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를 간행하니 이를 본 선교사와 목사가 “선교 사회에 문의하겠다”거나, “총회의 결의를 받아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분노한 일이 있었다(최태용 2009b, 86). 이처럼 최태용은 노회나 총회에서 법적인 처벌을 받은 일이 없었으나, “무교회주의자”라는 인식이 최태용의 꼬리표가 되어 기성 교회 내 활동에 제약받았다.

기성 교회의 방해에도 최태용은 교회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견지하고, 자신의 신앙 주장을 강화했다. 그는 『영과 진리』 제7호부터 33호까지 20호 분량으로 ‘영적 기독교’를 연재했다.

영적 기독교는 과거의 기독교의 헛 옷을 벗기고, 그 순진한 테를 살리고, 그리고 지금 사람의 영혼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즉, 영적 기독교는 기독교 진수의 계시요, 지금 산 경험을 사람의 영혼에 가져오는 종교요, 진리라고 나는 확신하는 바이다 (최태용 2009b, 125).

최태용은 신앙혁명의 구체적인 방법으로 영적 기독교를 제시했는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한 구원, 육으로써 영이 되기 위한 신앙생활 세 부분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1부는 하나님의 본질적 계시와 하나님은 누구인가에 관해 설명했다. ‘영’인 하나님은 ‘진리’로서 우리에게 표현되는데, 불변하는 영과 달리 진리는 시대와 상황에 따라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그로 인해 ‘영’의 표현인 ‘진리’는 불변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것이라고 했다(최태용 2009b, 137~243).

2부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검토했다.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영’이지만 ‘육’을 입고 이 땅에 왔으며, 죄의 본질인 ‘육’을 이기고 ‘영’으로 거듭남으로써 온전한 ‘육’으로 죄와 멸망의 속성을 가진 인간이 구원에 이를 방법을 보여주기 위해 모델 역할을 했다고 했다(최태용 2009b, 279~432).

3부는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에 관해 설명했다. 기독교인은 ‘영’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진리를 경험함으로써 구원에 이르게 되며, 구체적인 진리 경험을 통해 생명적인 신앙을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최태용 2009b, 448-548; 2009c 33-37)

최태용은 기독교 고전과 현대 철학을 공부하여 ‘영적 기독교’를 보완해 나갔으나, 조선 교회의 보수적인 정통주의 신학자들은 자유주의 신학적 색채가 강한 ‘영적 기독교’를 수용 불가한 영역이었다.

한국 선교 초기에 파송된 미국 장로회 선교사들의 신학은 19세기 미국에서 유행했던 자유주의 신학에 대한 극단적인 반동에서 나왔던 20세기 초의 보수적인 근본주의에 근거한 정통주의 신학이었다(송길섭 1981, 235-246).

더욱이 기독교에서 정통과 이단은 예수에 대한 관점과 성서 해석의 방식으로 구분된다. 정통주의 신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부활 등 예수의 구속(救贖) 사역을 중시하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영적 기독교’와 자유주의 신학은 예수의 행동보다는 예수의 인격(人格)에 더 집중한다. 최태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래 영이었으나 완전한 육이 되어(化肉) 죄를 이기고 영으로 거듭난 존재라고 설명하며, 예수의 삶은 육인 인간이 영으로 거듭날 방법을 예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최태용 2009b, 470-471). 또 구원은 “그리스도의 일과 사람의 신앙의 공동 작업”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활동과 종교 경험을 모두 중시했다(최태용 2009a, 532).

더욱이 선교사의 정통주의 신학을 계승한 조선 교회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를 인정하며, 성경이 완전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됐다고 믿는 축자영감설과 성경은 잘못된 부분이 없다는 성경무오설을 주장한다. 그러나 최태용은 1920년대 우치무라의 무교회주의를 수용해 신앙의 독립성을 주장함으로써 조선 교회의 경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 성서비평을 대폭 수용해 조선 교회가 믿는 성경의 절대적 권위까지 부정했다.

나는 무교회주의를 배워 교회에서 해방되었다. 나는 근대의 비판학을 접하여 성경에서 해방되었다. 교회, 성경에서 해방되어 나는 과거 전통의 일체에서 해방된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나의 기독교 인식을 벌거벗은 나의 영혼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관계에서 갖지 않을 수 없다(최태용 2009c, 19).

무교회주의를 통해 교회와 신앙을 분리하고, 근대 비판학을 통해 성경과 신앙을 분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직접 관계한다는 최태용의 고백에 대해 장로교회는 「조선예수교장로회 신조」 1조에서 말하는 성경은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이라는 조항을 부정하고, 교회의 근간을 흔들려는 행동으로 받아들였다.

최태용과 장로교회의 대립으로 백남용(白南鏞)<sup>17</sup> 역시 조선 교회에서 차별·

제약의 대상이 되었다. 백남용은 최태용 신학이자 연구주제인 ‘영적 기독교’를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여 ‘영적 기독교’의 설교자였다.<sup>18</sup> 그는 1930년 전북 익산의 금마에서 열린 『영과 진리』 독자들을 위한 집회를 시작으로 이듬해 1월 충남 논산, 2월 함흥, 3월 강원도 통천, 9월 김해와 전북 이리, 11월 함남 문천, 함흥, 함북 명천, 12월 김해, 양산을 거쳐 12월 30일부터 이듬해 1월 5일까지 열리는 금마집회의 강단에 서며 설교자로서 왕성하게 활동했다(최태용 2009b ; 2009c).

그러나 1931년 1월 논산 교회에서 진행된 집회에서는 강경과 논산 지역 교회를 맡은 한 목사가 집회를 중지시키려고 했으나, 교인들의 반발로 실패했고, 이에 강경교회에서 군병을 요청해 집회를 방해하니 이를 막으려는 교인들과 충돌이 발생할 뻔했던 일이 있었다(최태용 2009b, 460). 또 2월 함흥 집회에서는 근처 교회들이 집회 장소 대여를 거절해 집회날까지 장소를 구하지 못해 집회 인도를 요청했던 이진신(李鎭紳)의 집에서 집회를 시작한 일이 있었다(최태용 2009b, 491-492). 이처럼 최태용에게 대한 기성 교회의 차별과 제약을 계속되었다.

최태용과 장로교회 사이의 문제는 백남용이 경남 김해에서 이끈 집회로 인해 표면화되었다. 백남용은 1931년 9월 12일 백남용은 경남 부산시찰구 전도 사회의 초청을 받아 김해 대지교회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백남용은 경부선 구포역에서 마중나온 배철수(裴哲秀)를 만나 도보로 대지교회까지 이동했다. 그날 오후 8시에 열린 집회에서 백남용은 “신앙의 고집을 깨뜨려라”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다.

백남용의 설교를 들은 배철수는 “그(백남용)의 한마디 한마디가 바늘과 같이 모든 심령의 깊은 바닥을 관철했다”고 말했다. 설교 시간동안 탄성과 “아멘” 소

17 백남용은 당시 일본대학 사회학과에서 공부 중 우치무라의 성서연구회에서 최태용을 알게 되었다. 백남용은 최태용의 친우이자 평생의 동지로서 최태용의 연구를 지지·지원했으며, 강원도·경상도 등을 다니며 최태용의 ‘영적 기독교’를 설교했다. 1935년 최태용이 새 교회 창립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제일 먼저 참여했으며, 최태용이 정치운동으로 전향한 뒤 기독교조선복음교회 2대 감독으로 활동하다 1950년 공산당에 의해 순교당했다(백도기 1998).

18 최태용은 자신은 복음을 받았으나 세상에 행해질 것은 알지 못한다고 말하며, 복음이 백남용을 통해 선포되는 일을 기쁘게 생각했다(최태용 2009c, 53).

리가 가득했고, “참신앙을 알게되었다”는 집회 참석자들의 신앙 고백도 이어졌다. 또 어떤 이는 백남용에게 “20세기에 반드시 있어야 할 영(靈)의 과학자”라고 칭송했다. 일주일간 이어진 집회는 19일 오전 집회를 마지막으로 종료되었다(최태용 2009c, 51-52). 이 집회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백남용의 설교에 크게 감화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같은 해 11월 김해군 진영면 신용리 교회에서 마산구역 교역자를 중심으로 한 백남용의 집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12월 초로 연기되었다. 신용리 교회 집회가 끝난 후 백남용은 양산으로 이동해 집회를 열었고, 최태용은 12월 24일 동경을 출발해 26일 양산에서 백남용과 합류했다. 최태용은 양산에 머무르는 3일간 집회와 설교를 이끌었다(최태용 2009c, 99-100).

1932년 1월 제30회 경남노회에서 소속 교회 및 전도사들이 백남용을 초청해 열었던 집회가 문제시되었다. 노회는 소속 전도사 배철수, 금석호, 홍성만, 손양원, 오성문, 김형윤이 당회의 허락 없이 백남용을 초빙해 집회한 것에 대해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이만열 1998, 282-284).

이 소식을 들은 최태용은 조선 교회가 율법 기관이 되었다고 비판하며, 경남 노회가 교회법을 내세워 핍박한다고 생각했다(최태용 2009c, 106).

## 2. 경남노회 치리사건과 공동체 관리

1932년 1월 제30회 경남노회에서 최태용의 ‘영적 기독교’와 백남용의 집회에 호응한 소속 교역자들에 대한 조사 명령을 내린 후 경남노회는 평양장로회신학교의 박형룡(朴亨龍)을 초청해 7월 1일부터 5일간 교역자 수양회를 개최했다. 일제강점기 조선 장로교회의 대표적인 보수 신학자인 박형룡은 선교사들이 조선 교회에 전해준 복음주의 신앙과 보수적 정통주의 신학이 조선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며, 선교사들의 칼빈주의 개혁과 정통신학을 고수했다(송길섭 1981, 247).

박형룡은 타종교는 물론이고 기독교 내부의 정통을 따르지 않는 비정통 역

시 ‘이단’으로 파악했다. 그는 신·구약 성경이 하늘의 계시와 영감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믿는 정통주의 신학의 입장에서 그것을 믿지 않는 것은 ‘비정통’ 곧 ‘이단’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성경에 부합하는 교리,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좇는 것은 ‘정통’이며, 정통교리와 다르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은 ‘이단’으로 구분했다(박형룡 1983, 28).

그는 ‘정통’과 ‘이단’을 구분하는 일이 중요하게 여겼다. ‘이단’이 기독교의 복음적 요소를 파괴하고 교회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이단’을 반드시 교회에서 제거해야 할 대상이었다. 그 영향으로 1930년대부터 장로교회에서는 많은 이단이 생산되었다(장석만 2003, 153).

백남용 집회에 대한 경남노회 조사 명령과 보수주의 신학자 박형룡의 특강 등 경남노회의 조치에 대해 최태용은 기성 교회의 관용을 요청했다.

근자에 우리에게 복음을 들은 자를 어떤 노회는 그 이유로써 그 소속 교회의 장로를 파면하며, 어느 지방에서는 그들이 소위 그들의 교리에 복종치 아니함을 책잡고자 소동을 일으키며, 또 어떤 지방에서는 신자가 우리의 잡지를 구독함을 금하려 하니, 이 어찌 가당한 일인가? ... 조선 교회에는 지도 정신이란 것이 있어, 그것이 좀 더 종교의 본질에 착안한 거이며, 신앙에 있어서 개인의 확신을 포용하는 관대한 것이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금 기성 교회를 파괴하지 않으며, 신 교파를 창조하고자 하지 않는다. 우리의 친구들로 장로는 그 교회의 충실한 장로이고자 하며, 전도자는 그 집회에 생명의 말씀을 주기를 힘쓰며, 평신도는 그 회당을 기도의 집으로 쓰고 있을 따름이다(최태용 2009c, 199).

1933년 1월에 열린 제31회 경남노회에서 부산시찰회의 보고를 통해 백남용 집회의 전말을 알게 된 당시 경남노회장이었던 주기철(朱基徹)은 “교회법을 따라 처리하되, 시간을 두고 지도·감독한다”는 결정을 내렸다(이만열 1998, 295). 최태용은 경남노회가 소속 교회와 전도사들에게 노회의 뜻을 따르라고 강요한다고 말하며, 만약 이들의 신앙에 잘못됨이 있더라도, 진리로 권면하기보다, 책벌을 통해 처리하려는 것을 비판했다. 또 자신이 이전에 울산교회에서도 4~5회 경연을 했지만, 신앙 외에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최태용 2009c,

296-297).

경남노회는 부산시찰회를 중심으로 경남일대에 확산되었던 이단 문제를 신학적인 바탕에서 접근하고자 했다. 노회장 주기철(朱基徹)은 6월 26일부터 1주간 마산에서 교역자 수양회를 개최했다. 박형룡이 다시 강사로 초빙되었고 특별교리 문제에 관한 강좌도 개설되었는데, 특별교리 문제는 바로 경남노회가 겪고 있는 이단 문제였을 것으로 보인다(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편 1980, 644).

이 무렵 박형룡은 백남용의 설교와 사상을 신학적으로 분석해 『신학지남』에 ‘신비적 속죄론’(1933.11; 1934.1)과 ‘게노시스 기독교론’(1933.9)을 게재했다. 그는 백남용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사람 안에 있어 그의 행위가 변화해야 구원되는 것으로 보는 ‘신생(新生)’을 주장한다고 했다. 그는 백남용이 말한 ‘신생’이란 회개와 다른 것으로 기성 교회의 구원론과는 다른 이단적 주장으로 인식했다(소요한 2014, 205-207).

또 예수 그리스도는 본래 영이었으나 완전한 육이 되어(化肉) 죄를 이기고 영으로 거듭난 존재로 예수의 삶은 육인 인간이 영으로 거듭날 방법을 예표한다(최태용 2009b, 470-471)는 설명에 대해서는 “순육론”이라고 칭하며, 그 이단성을 지적했다. 기성 교회는 최태용이 『영과 진리』 23호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 하나님이 되지 못하고 육이 된 인간”(최태용 2009b, 413)이라고 한 것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아니 순전한 인간(純肉)로 인식했다고 말하며 하나님-예수님-성령님이 한분이라는 삼위일체설을 부정한 했다고 인식했다(소요한 2014, 205-207).

한편, 경남노회는 1월에 열린 제31회 경남노회 이후 약 6개월간 해당 전도사들과 교회를 권면했으나, 이들은 끝까지 노회의 치리에 복종하지 않았다. 이에 7월에 열린 임시노회에서 최태용계 추종세력을 ‘이단’으로 규정하고, 최태용을 따르는 전도사들과 장로들을 “이단”과 “상회 명령 불복”의 죄목으로 출교·면직·무기책벌 등의 처분을 내렸다(이만열 1998, 297-301).

1933년 7월 30일 일요일에 울산읍교회에서 최태용을 따르는 교역자들이 교인들의 예배를 막아 교역자와 교인이 다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경남노회

는 울산읍 교회를 치리하기 위해 목사와 장로를 새로 파송하고 제직자 회의를 요구했으나, 울산읍교회는 노회의 간섭을 거부했다(동아일보 1933/08.03).

울산 교회의 소란이 쉽게 정리되지 않자, 박형룡은 대차 ‘신비적 속죄론(속)’을 『신학지남』에 투고해 “신생”의 핵심이 되는 사상 중 그리스도와 신비한 연합을 주장하는 것은 ‘범신론’이라 정의하며, 최태용에게 대한 ‘이단’ 비판의 강도 높였다(박형룡 1934, 8-12).

최태용은 경남노회의 ‘이단’ 처분과 박형룡의 ‘이단’ 비판에 대해 자신의 주장이 기존 기독교와 표현방식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변론했으나, 조선 교회의 시각에서 최태용 신학의 바탕은 이미 정통주의 신학과 완전히 어긋난 것이었기 때문에 최태용과 기성 교회의 공존은 절대 불가한 일이었다.

경남노회 치리가 결정되지 않았던 1932년부터 최태용은 이미 기성 교회에서 “무교회주의자”, “이단”로 인식되어, 집회를 열 공간을 구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최태용 2009c, 250). 1932년 12월에 군산에서 계획된 집회는 공간 대여가 취소되어 군산 소재 일본 교회의 예배당을 빌려서 겨우 개최할 수 있었다. 최태용은 이때의 상황을 “비극”이라고 말하며(최태용 2009c, 291),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교회는 우리를 이단이라 하며, 무교회주의자라고 한다. 왜 이단이라고 하는가? ...우리는 이를 다만 전통을 승인하는 정도에 그치지 않고, 우리가 이를 우리의 현재적 확신으로써 그렇게 믿는 한, 우리가 예수를 하나님 아들이라 하며,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일은 보다 더 산 문제요, 산 확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그리스도론, 성경관을 들어서 이를 이단이라 운운함, 이는 우리의 현대적 의식으로써 하는 해석에 대한 인식 부족, 무학, 무식을 폭로하는 것일 뿐이다(최태용 2009c, 292).

기성 교회와의 갈등은 최태용 개인의 괴로움에서 끝나지 않았다. 1929년 이래 최태용은 매년 연말에 『영과 진리』 독자들과 전북 금마에 모여 집회를 열었는데, 경남노회 치리 이후 최태용을 따르는 사람들에 대한 소속 교회의 핍박이 심해 소속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었다(최태용 2009d, 250).

1935년 최태용은 “무교회주의의 원리적인 것을 재현한 교회”를 설립하고자 결정했다(최태용 2009d, 262). 그해 12월 서울 소격동에서 기독교조선복음교회가 창립되었다. 그는 복음교회가 복음적이고 생명적 신앙, 학문적인 신학, 조선인 자신의 교회를 목표로 설립되었음을 밝혔다. 복음교회의 신앙 고백문을 『영과 진리』에 실어 그동안 최태용에 대한 이단 혐의를 해명함과 동시에 복음 교회도 기성 교회와 다르지 않은 보편적인 기독교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최태용 2009d, 293).

#### IV. 맺음말

1910년 한일병합을 전후해 일제는 민족적 성향이 강한 한국 기독교를 억압·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일본의 기독교 통제 법령을 변용하여 조선이 적용했다. 선교사들은 일제의 기독교 정책과 일본 기독교의 침투를 마주하며, 한국 교회의 자립을 추구했던 초기의 선교 목표를 대신하여 조선 기독교와 교회의 생존을 추구했다.

한국 교회는 선교사들이 전해준 정통주의 신학을 바탕으로 복음주의적이고 경건주의적인 신앙이 그대로 정착되었다. 교회의 보수적 성향이 깊어짐에 따라, 교회 운영이나 신학 등 조선 교회에 관한 비판 역시 거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엄격한 교리와 보수적 신앙을 가졌던 조선예수교장로회에서 두드러졌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조선예수교장로회는 조선총독부의 기독교 통제와 종교 탄압에 부딪쳤으며, 안으로는 선교사의 교권 독점과 보수적 정통주의 신학에 대한 비판에 직면해 있었다. 일제강점기 조선 교회는 조선총독부에 기독교 통제 법령에 대해서는 협조와 협상을 통해 선교의 편의를 구축했으며, 선교사와 교회에 대한 비판은 교회에 대한 공격으로 인식하고 ‘이단 시비’를 통해 통제하고, ‘치리’를 통해 공동체에서 배제시켰다.

1910년 최중진의 자유교회 사건을 시작으로, 조선 교회는 ‘이단 시비’와 교회

의 ‘치리’를 교회의 정통적 권위에 저항하거나, 교회의 결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기성 교회공동체에서 차별하고 배제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러나 최중진과 이만집의 사례와 같이 교회 운영과 교권의 문제같이 선교사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는 이들을 ‘이단’으로 치부하고 비난하더라도, 정직·면직·제명과 같이 교회공동체에서 일시적으로 격리하는 처벌에 그쳤고, 최중진 사례처럼 다시 장로교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 교회에서 본격적으로 이단 치리가 발생한 것은 신비주의적 종교체험과 무교회주의, 자유주의 신학으로 인해 발생했다. 조선 교회는 선교사가 전해준 신앙과 신학을 한국 교회의 정통으로 인식했으며 정통에서 벗어난 이들은 ‘이단’으로 치리했다. 즉, 장로회의 정통적·보수적 신앙을 부정하고 여타의 신학을 통해 조선 교회를 인식하고 비판했던 이용도·최태용의 경우, 교회가 직접 ‘이단’으로 판단하고, 그 추종자까지 모두 치리해 교회 공동체에서 추방함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혼란을 방지하고, 결속을 도모했다.

1930년대 후반 일제는 기독교계 학교에 신사참배를 강요하는 한편, 법령의 개정을 통해 기독교에 대한 통제를 점점 강화했다. 미·일 관계의 변화에 따라 조선총독부와 서양 선교사의 관계 점점 악화되었고, 조선총독부는 서양 선교사에 대한 적극적인 억압과 통제를 실시하며, 선교 철수를 종용했다.

이러한 가운데 1910년대~1930년대 중반까지 교회 내 소수 세력에 의해 추구되던 조선 교회의 ‘자립화 운동’은, 1930년대 중반 이후 조선총독부와 조선인의 제휴 및 선교사 배척을 계기로 조선 교회 전체로 확산되었다. 이들은 조선 교회의 독립에 집중되어 친일의 함수에 쉽게 빠졌고, 이러한 경향은 1930년대 말 전시체제기에 조선 교회의 생존 문제를 맞닥드리자, 최태용을 비롯해 많은 교회가 일제에 굴복하고 전쟁에 협력하는 선택을 수 없는 죄과를 안게 되었다.

본고는 일제강점기 조선 교회가 교회에 대한 공격을 ‘이단 시비’와 ‘치리’를 통해 대응했음을 밝혔다. 그러나 일제 강점이란 시간과 공간에서 차별과 배제의 방법이 접목되어 도출되는 특수성을 밝히는 점에서는 미비한 부분이 있으므로 이 부분은 후속 연구에서 계속하겠다.

## 참고문헌

『대한매일신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간격수정)

Robert E. Speer, 1897, Report on the Mission in Korea of the Presbyterial Board of Foreign Mission(The Board of Foreign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897)  
Arthur J. Brown, 1902, Report of a Visitation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Board of Foreign Missions(The Board of Foreign Missions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Annual Meeting of the Southern Presbyterian Mission in Korea, 1921-1931.

권평. 2012. “初期 韓國教會의 治理에 관한 一 研究.” 『교회사학』 11-1.

김교신, 노평구 편. 2001. 『김교신전집』 1-4, 부키.

\_\_\_\_\_. 2002. 『김교신전집』 5-7, 부키.

김남식. 1987. 『日帝下 韓國教會 小宗派運動 研究』, 새솔출판사.

김승태 편, 1996, 『일제강점기 종교정책사 자료집』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김장호. 1941. 『조선 기독교회사』, 조선기독교회전도부.

김정화. 2022. “일제강점기 조선 교회 ‘자립화 운동’ 연구-최태용의 활동을 중심으로.” 전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편. 1980.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록』1-7. 대한예수교장로회 교육부.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북노회 편. 2000. 『전북노회 회의록』, 대한예수교장로회 전북노회.

류대영. 2013. 『개화기 조선과 미국 선교사』,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박형룡. 1983. 『박형룡 박사 저작전집 8』,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_\_\_\_\_. 1981. 『박형룡 박사 저작전집 14』, 한국기독교교육연구원.

\_\_\_\_\_. 1933a. “계노시스기독론.” 『신학지남』 71(1933.9). pp. 18-32.

\_\_\_\_\_. 1933b. “신비적 속죄론.” 『신학지남』 72(1933.11). pp. 2-8.

\_\_\_\_\_. 1934. “신비적 속죄론.” 『신학지남』 73(1934.1). pp. 8-12.

박혜미, 「1910년대 일본조합교회 조선전도본부의 활동과 식민주의」, 『한국민족운동사연구』 74(2013), 87쪽.

백도기. 1998. 『순교자 신부 백남용』, 한민미디어.

변종호. 1973. 『이용도목사전』, 신생관.

서정민. 2022. 『한일기독교 관계사 연구』, 대한기독교서회.

안유림. 2018. 『일본제국의 법과 조선 기독교』, 경인문화사.

이만열. 1998. “주기철 목사의 신앙.” 『한국기독교와 역사』 9.

이용도, 변종호 편. 1986. 『이용도목사전집』 1-9. 초석출판사.

- 이종우. 2006. “한국 장로교와 감리교의 초기 선교정책의 비교 연구: 네비우스 정책과 올링거의 정책을 중심으로.” 『복음과 선교』 7.
- 이진구. 2014. “일제하 기독교 종파의 형성과 유형.” 『한국종교』 37.
- 장석만. 2003. “한국 기독교와 이단 생산의 사회.” 『오늘의 동양사상』 9.
- 齋藤子爵記念會 편, 『子爵齋藤實伝 2』(齋藤子爵記念會, 1941), 850-851쪽.
- 정성하, 「일본조합교회와 일본 제국주의」, 『신종교연구』 2(2000), 278쪽
- 조선총독부 지방부, 「耶蘇教ニ關スル諸報告」, 1910(조선총독부기록물 CJA0004734).
- 조선총독부, 『朝鮮の統治と基督教』(朝鮮總督府, 1923), 7쪽.)
- 최태용. 기독교대한복음교회 신학위원회 편. 2009. 『최태용전집』 1-6, 꿈꾸는 터.
-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편. 1988. 『基督申報』 1-16. 韓國教會史文獻研究院.
-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편. 1994. 『내한선교사총람 1884-1984』.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_\_\_\_\_. 2005.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上』.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_\_\_\_\_. 2002. 『조선예수교장로회사기 下』.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편. 2017. 『한국 기독교의 역사 II』.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 **Abstract**

# The Christian Policy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he Management of the Church Community of the Joseon Church in Japanese Colonial Period

Kim, Jeonghwa

Before and after the annexation of Korea in 1910, Japan modified Japan's Christian control laws as a means of suppressing and controlling Korean Christianity, which was strongly ethnic, and Joseon applied them. Missionaries began to pursue the survival of Joseon Christianity and churches instead of the initial missionary goals that pursued independence of Korean churches through Japanese Christian policy and penetration of Japanese Christianity. As a result, the Joseon Church grew into a denomination church centered on Presbyterian and Methodist churches under the influence of missionaries and evangelical and pious faith has been established based on the orthodox theology delivered by missionaries.

Missionaries cooperated or negotiated with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for the stable operation of churches and missionary institutions. But on the other hand determining whether it is heresy and punishing the church were used as a means to control and exclude those who resisted the orthodox authority of the church or did not follow the church's decision.

If missionaries criticize and confront the situation of running the church and monopolizing church power, they are considered heresy, and they were punished for being temporarily isolated from the church community, such as suspension, dismissal, and expulsion. However, Presbyterian thought that faith and theology delivered by missionaries were orthodox of the Korean church, so mystical religious experience, the Mukyohoe(non-Church), and liberal interpretation of the Bible were disposed of as heresy. He also tried to prevent confusion and unite the church community by punishing all its followers and expelling them from the church community.

**Keywords** - Christian Policy, Community Management, Heresy, Self-sustaining Movement, Choi Tae-yong

(투고일: 2023년 11월 21일, 심사일: 2023년 12월 04일, 게재확정일: 2023년 12월 08일)